

農漁村地域 下位定住體系 模型의 代案設定

An Alternative Model on Hierachial Settlement System in Rural Areas

崔 洙 明*
Choi, Soo Myung

Summary

In rural settlement planning, its spatial development framework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hierachial settlement system. However, up to now, there does not exist widely - accepted model on rural settlement hierarchy.

In this study the basic planning principles and directions on the modelling of the settlement hierarchy in rural areas have been consolidated through theoretical study and situational analysis on planning environments. And also, a new yardstick on the grading of the middle - level centers between villages and rural towns has been tried to find out.

The research resulted that the existance of periodical rural market might be used as a simple and innovative yardstick on the hierachial ordering of rural settlement system. Based on the above results, an alternative 4 - step model of rural settlement hierarchy was proposed : Rural Town(county hall sitted) -Market Center(having standard periodical market) - Village Center(having no market) - Village.

Finally, because the conclusion has been made by very limited case studies and several previous works, there should need continuous studies and checks in future for full reasoning of the proposed model.

* 全南大學校 農科大學

키워드 : 下位地域整備, 農漁村定住體系, 形成理論,
定期市場, 定住階層體系

I. 緒 論：下位地域整備의 意義

農漁村地域 住民들과 農村開發問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면 主題의 本質적인 接近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많은 마을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치녀는 물론 젊은 부녀자가 매우 희소하며, 마을 里長의 대부분이 40代 후반이 아니면 50代인 연령구조하에서,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젊은층의 農村回歸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어떻게 農村의 장래를 논하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절규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人口비중이 絶對優位이고 經濟的 餘力을 확보하고 있는 많은 도시인들은 지나치게 맹목적인 環境保護論者들의 집요한 설득에 힘입어 都市生活에 필수적인 맑은 공기, 대량의 용수 등 自然資源 供給基地로서 農村이 주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開發制限區域指定, 上水道保護區域指定, 國公立公園地域指定 등 開發規制가 施行되어 農漁村地域이 스스로의 發展潛在力을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제한당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샌드위치적인 여건하에서 어떤 학자는 國土空間構造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즉, 人口가 희박하고 오염이 되어있지 않은 江原道地域 전체를 소개하여 自然景觀 및 水資源 涵養地域으로 만들고 西海岸에 大規模 干拓事業을 施行하여 광대한 토지를 창출하므로써 소개된 住民을 집단 이주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므로써 國家發展에 필수적인 水資源 등 自然資源을 대량확보하고, 其他地域은 環境保全에 대한 큰 제약없이 開發을 추진하므로써 國土空間의 기능을 地域別로 極大化시킨다는 戰略이 뒤따른다.

國土空間上에서 下位地域을 구성하고 있는 農漁村地域을 계속 자유방임한다면 일부 또는

전체 農漁村地域이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空洞化하거나 社會的, 經濟的 능력의 부족으로 農漁村地域에 살 수 밖에 없는 疏外된 國民(Deprieved people)의 低級定住空間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사태의 추이들은 下位地域에 효율적인 開發努力을 投入하여 國土空間上에서 상응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空間으로 회복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定住機能을 제거하고 나머지 地域에 대한 自然資源 提供機能만을 차질없이 수행케 하자는 양자택일적 선택의 제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이 과도하게 현상을 확대표현하고 있을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農漁村下位地域 整備의 긴박성과 강력한 필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부각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II. 下位地域 定住體系의 概念

下位地域整備는 근본적으로 地域의 定住環境을 목표로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定住環境¹⁾이란 “한 地域에서 내부적으로 축적보유하고 있으면서 人間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하는 自然 또는 人間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형 또는 무형요소들의 有機的 統合體系”라 定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地域의 定住環境은 5가지 要素, 즉 그 地域의 人的資源과 그들에 의해서 창출되는 物理的, 社會制度的, 文化的 環境 그리고 이들 要素들이 입지하는 바탕인 自然的 環境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要素들은 상호밀접한 연관관계하에서 有機的으로 統合된 하나의 體系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體系가 空間的인 階層秩序(Hierachial Order)下에서 地域住民의 재만활동을 지배할 때 이를 階層的 定住體系(Hierachial Settlement System)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1. 定住環境 構成要素의 內容.

構成要素	主要對象과 범위
人的 資源	○ 地域住民의 人口學的 構成(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
物理的 環境	○ 物理環境(Physical environment) : 도로, 교통, 통신, 주택 등과 토지이용, 경지정리 등 각종 생산기반 ○ 經濟環境(Economic enviroment) : 소득, 고용, 산업경제조직등 ○ 福祉環境(Welfare environment) : 교육, 의료, 체육, 휴양,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社會的 環境	○ 社會組織, 統制 및 自治活動과 制度 ○ 地域의 行政 및 政治와 住民參與 등
文化的 環境	○ 住民들의 價値, 意識, 관습, 풍습 ○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적 활동기회 등
自然的 環境	○ 기후, 토지, 식생 등 ○ 환경(오염) 등

따라서 地域의 定住體系는 地域의 大土地利用體系와 더불어 地域産業과 生活活動을 지배하는 중요한 전체적 성격의 틀이라 할 수 있으므로 下位地域整備에 있어서도 地域定住體系 定立問題는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聚落(定住)體系²⁾는 크게 上位의 聚落體系(都市體系)와 下位의 農村的 聚落體系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下位聚落體系라 함은 最下位階層 中心地인 農村中心都市를 最上位階層 中心地로 하여 國土의 最下單位인 聚落들을 統合하고 하나의 地域體系로 편성시키는 것이다.

III. 定住體系 形成理論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都市의 定住體系는 시장경제의 지배논리하에서도 體系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반면 農村的 定住體系는 地域空間構造의 粗放性으로 인해 體系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³⁾

이러한 여건하에서 효율적인 農村定住體系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農村定住計劃의 形成理論에 基低하여야 한다.⁴⁾

理論 1 : 階層的 農村定住體系 (Hierachial se-

ttlement pattern)

農村定住는 階層的 定住體系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階層體系는 結節點(Nodal points)를 지원하므로써 효율적으로 運用된다.

理論 2 : 임계치의 可變性 (Changing thresholds)

일정한 서비스의 存立領域(Range of goods)은 靜的인 것이 아니고 動的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임계치는 經濟的 측면의 임계치(Economic thresholds)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社會的 측면의 임계치(Social thresholds)도 고려되어야 한다.

理論 3 : 規模의 經濟性 (Economies of scale)

서비스 부분의 1인당 비용도 생산부문과 마찬가지로 장기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을 이루고 있어 일정한 包括人口(Catchment Population)까지는 비용의 經濟性이 있다. 그런데 이 비용에는 社會的 측면의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理論 4 : 成長中心地 (Growth center)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상대적인 투자

효율성이 저위에 있는 農村地域의 開發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된 成長據點 (Growth poles)에 집중적인 開發努力을 投入하여 集積效果 (Agglomeration)를 달성하고 이 효과를 背後地域 (Hinterland)에 波及 (Spread or Trickle-down)시켜 최종적으로 地域全體의 開發을 도모한다는 불균형 成長理論인데 현실적으로는 周邊地域에 대한 과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中心地域과의 接近性 제고가 보완되어야 한다.

IV. 農漁村地域 定住體系의 樹立與件

현재 우리나라 農漁村이 겪고 있는 問題狀況은 政府, 學界, 農村住民 모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하게 재론할 필요는 없으나 간단히 요약정리한다면 "都市産業社會化 과정에서 겪는 構造的 變動"이라 할 수 있다.

즉, 社會 전반에 걸쳐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혜택을 받는 地域과 그렇지 못한 地域이 현저히 구별되는 經濟社會의 構造가 空間적으로 深化되고 이러한 社會變動下에서 農村은 貧困, 雇傭不安, 住居環境劣惡, 社會的 不利益, 機會制限 등 農村社會의 내부적 불안정을 겪게 되고 農村資源利用에 관한 都市部門과의 갈등에 의해 외부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의해 農村은 人口流出, 社會的인 兩極化, 地域社會 權力構造의 歪曲, 農村疏外の 深化등 여러가지 問題點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要素는 전통적인 형태의 農村勞動需要 減退, 移動能力(Mobility) 및 에너지 사용능력의 획기적 증대, 資源利用의 합리화 추구, 農村環境에 대한 선호도 증가, 土地利用 및 土地所有權의 변화 등이, 또 이러한 변화를 제어하는 要素는 都市, 農村 양측의 대

응자세, 計劃次元의 대응, 관련 행정의 독립적 분산성, 의도와 실행과의 괴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農村問題에서 본질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은 農村人口의 變動과 農村地域의 疏外現象, 그리고 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 農村部落을 둘러싼 장래의 社會, 文化的 骨格 構造 (Framework)라 할 수 있다.

1. 農村人口의 變動

都市産業社會化 과정과 연계시켜 農村人口의 變動課程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

가. 産業化 前段階: 人口成長

: 地域內 人口의 自然成長과 일부유입

나. 産業化 初期段階: 人口成長率 減少 및 人口流出開始

: 自然成長분이 人口流出분보다 큼.

다. 産業化 中期段階: 人口減少 및 人口構造歪曲

: 청년층, 가임연령층의 급격한 이촌으로 自然成長분이 極少化하고 노령화하여 人口流出이 極大化

라. 産業化 成熟段階: 地域與件別 分化現象

: 遠隔地域은 人口減少가 지속되는데 반하여 廣域都市影響圈 (Pressure areas)은 自然成長 및 인구유입에 의해 人口成長으로 반전

따라서 현대에 있어 農村地域은 근본적으로 過疎化(遠隔地域)에 따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점차 過密化(廣域都市 影響圈)에 따르는 問題狀況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세심한 분석과 計劃對應이 필요해지고 있다.

2. 農村疏外の 深化

農村疏外(Rural Deprivation)란 農村住民이 人間으로서 社會로 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혜택에서 疏外되거나 기회가 제한 또는 박탈되는 것을 말하며, 疏外의 內容⁶⁾은 Household -, Opportunity -, Mobility - Deprivation 등이며 이들

은 상호 상승적으로 악순환되어 農村疏外를 深化시키고 있다.

農村疏外의 심각성은 農村地域 전체가 갖는 疏外現象보다는 地域別, 部門別, 階層別, 個人別 疏外에 의해 야기되는 어려움에 더 크게 기인한다.

앞의 人口變動 최종과정에서 보여주듯이 都市影響圈은 人口流入으로 地域활성화가 가능한 반면 遠隔地域은 지속적인 人口流出로 地域的 疏外를 겪고 있으며, 農業勞動部門, 小規模 家內手工業, 전통적인 農村서비스部門은 都市化的 절대적 강세에 의해 疏外를 겪고 있다.

階層別, 個人別 疏外現象은 農村的 與件變化에 적절히 대응할 능력이 없는 階層에서 발생한다. 農村에는 經濟的 부담능력이 매우 열악한 貧困層과 노약자층, 정년퇴직자층이 都市地域에 비해 구성비가 높고 또 그러한 階層은 中心地보다는 周邊地域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中心地 集中開發의 경우 開發혜택을 수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資源집중화에 따른 周邊地域 定住機能의 약화로 오히려 疏外現象은 더욱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農村地域施設과 住居環境의 질적 고급화경향을 經濟的으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社會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疏外도가 더욱 심한 地域으로의 이주를 강요받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農村定住體系 수립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련의 疏外現象 極少化에도 크게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3. 農村部落과 關聯된 將來의 社會文化的 骨格構造

將來에 있어서도 生活를 유지하기 위한 基本要素들 (Basic life-style opportunities)인 雇傭, 住居, 서비스 및 接近度 유지 등이 필수불가결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農村計劃이 현재의 生活樣式을 고수하는데 목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生活樣式을 추구하여 이에

基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Moseley²⁾에 의하면 將來의 社會文化的 骨格構造가 다음과 같은 세가지 變化潛在力에 의해서 재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 技術的 變化

技術的 變化(高度化, 省力化)에 의해 실업수당 수혜자가 늘어나고 政年연령이 낮아져서 많은 사람이 주요 雇傭中心地 또는 그 인근에 거주해야 하는 구속에서 해방되므로서 이들 人口層이 農村에 回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技術的 進보에 의해 下部構造에 있어 規模의 經濟性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즉 小規模 에너지 공급 및 下水處理體系의 開發과 정보통신수단의 대중화는 農村에의 분산거주를 조장케 된다.

나. 行爲 및 態度的 變化

自發的인 單純性 (Voluntary simplicity)의 추구에 의해 生活的 簡소화, 環境에 대한 강한 관심, 보다 人間的인 規模의 生活 및 雇傭環境으로의 回歸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공동체안에서 보다 고차원의 人間潛在力을 실현코자하는 의지 등이 行爲 및 態度로서 나타나게 되어 이 중 상당수가 이를 農村部落에서 실현하려 할 것이다.

다. 政府의 政策

이러한 일련의 變化에 따라 政府는 農村에 대한 資源合理化施策이 갖는 한계를 명백하게 인식하여 “自發的인 單純性” 추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새로운 社會文化的 構造가 정착될때까지 疏外된 階層에 대한 기회 제공을 꾸준히 하므로서 農村部落이 매래의 새로운 秩序構造에 무리없이 순응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

물론 이상의 3가지 變化要因은 매우 이상적인 면이 많아 그대로 수용키는 어려울지 몰라도 많은 부분 우리가 計劃時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V. 定住體系模型의 代案設定

1. 既存定住體系

II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定住環境은 人的 資源, 物理的, 社會制度的, 文化的, 制度的 環境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러한 構成요소들이 地域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總體인 定住環境과 그 틀인 定住體系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全南地域 6個郡 地域(고흥⁸⁾, 장흥⁹, 완도¹⁰, 해남¹¹, 곡성¹², 보성¹³)에 대해 Davis의 기능지수, 시장이용형태, 중학교 학구 등의 분석을 토대로 既存定住體系 現況을 조사한 결과나 지리산권의 山村地域 定住體系 조사결과¹⁴) 역시 일반적 模型化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島嶼地域인 완도군의 경우 面級單位 島嶼地

域으로 構成되어 있고 島嶼地域의 隔絶性으로 인하여 面級單位地域의 중심기능은 인구규모에 비해 높은 편이나 시장 이용 형태면에서는 自體地域에 대한 이용 선호보다는 접근도가 좋은 地域에 대한 이용선호가 절대적으로 지배하여 녹동(고흥), 마량(장진), 북평, 송지(해남), 회진(장흥) 등 주변 육지의 浦口地域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地域與件이 유사한 (平野地域, 巨郡 및 巨面, 海岸地域, 遠隔地域) 고흥, 해남의 경우에도 定住體系는 매우 판이하다. 고흥의 경우는 全體地域이 고흥권, 녹동권, 과역권, 그리고 벌교권(동강권)으로 완전 분리되면서 시장이용형태도 권역자체가 독립성과 거점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해남군地域은 地域中心都市인 해남읍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여 이에 비견할만한 독립적 거점권역이 나타나지 않고

Table-2. 農村市場의 利用人口.

高興郡				長興郡			
市場名	自體人口	利用人口*	順位**	市場名	自體人口	利用人口	順位
고 흥	15,237	55,340	1	장 흥	24,027	43,400	1
도 양	22,585	43,875	2	관 산	14,303	14,274	2
도 화	13,377	10,664	4	대 덕	9,561	14,455	3
과 역	8,888	20,909	3	장 평	6,826	6,767	5
동 강	8,334	11,369	7	海南郡			
寶城郡				市場名	自體人口	利用人口	順位
市場名	自體人口	利用人口	順位	해 남	31,029	74,309	1
보 성	16,559	40,460	2	송 지	16,041	13,315	4
벌 교	32,269	35,521	1	북 평	8,526	3,837	6
북 내	6,382	9,388	5	황 산	14,436	10,961	3
예 당	14,952	17,639	3	문 내	10,576	10,218	2
조 성	13,284	8,236	4	화 원	9,852	8,305	5
谷城郡				莞島郡			
市場名	自體人口	利用人口	順位	市場名	自體人口	利用人口	順位
곡 성	12,592	19,194	1	완 도	22,739	45,543	1
옥 과	6,182	14,201	3	금 일	11,158	4,996	8
석 곡	6,068	12,553	2	노 화	12,881	19,200	2

註: * 利用人口: 利用地域의 人口×利用率을 합한것

**順位: 기능지수상의 順位

다만 인구 만명급 면인 북평, 송지, 황산, 문내, 화원 등에서 자족적인 자체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

中山間地域인 谷城, 宝城, 長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곡성의 경우 곡성읍의 地域中心都市機能이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는 반면, 옥과, 석곡면地域이 상당한 中心機能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용권역도 3개 中心地가 거의 대등하게 분할 지배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面級中心地의 機能은 매우 미약하다.

보성은 군청소재지인 보성읍보다 人口, 中心機能面에서 우위에 있는 별교읍이 地域을 양분하는 가운데 중간의 예당, 조성, 복내 등이 기타 面級地域 보다 높은 中心機能과 시장이용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장흥군 地域은 북부는 山地地域인 반면 남부는 海岸平野地域인데 장흥읍은 地域中心都市이자 北中部 地域의 中心機能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南部地域에 있는 관산, 대덕은 장흥읍에 이르는 국도변에 인접하여 각자 독립적인 최하위 생활권과 시장권역을 균점하고 있다.

또 지리산권역에 속해 있는 5개군 15개면중 대표적으로 남원군 산내면, 함양군 마천면의 경우를 보면 지형적인 영향으로 양면의 中心機能은 극히 미약하고 양면 공히 국도와의 결절점에 있는 인월(남원군 동면)에 中心機能과 시장이용을 의존하고 있다.

2. 先行研究 및 代案의 模索

이렇게 農村地域은 定住階層性이 매우 다양하므로 제안된 定住體系가 매우 다양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崔¹⁵⁾는 農村地域의 下位定住體系概念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여 平野地域은 中心都市-小都邑I-마을로 이어지는 3段階으로 구분하고 山間地域은 中心都市-小都邑I-小都邑II-마을의 4階層으로 구분하였다.

既存의 2-3개면을 통합하여 면행정구역을

확대개편하자는 案¹⁶⁾과 1面に 3~4個 있는 국민학교를 통폐합하여 面單位 생활권을 강화하자는 案¹⁷⁾도 있다.

柳¹⁸⁾는 山村地域의 定住體系 設定을 통해 국민학교 학구를 中心으로 한 中心村落(面單位 地域도 포함)을 設定하여 農村中心都市-(面所在地)-中心村落-마을의 3階層案(또는 예외적으로 4階層)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先行研究事例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직도 農村地域 下位定住體系에 대한 공통적인 합의점이 없으며 階層區分에 대한 일반화된 기준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農村定住體系의 最上位階層인 中心都市와 最下位階層인 마을에 대해서는 階層地域의 존립을 合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中間階層인 小都邑I, II(小邑 또는 面所在地)와 中心聚落에 대해서는 제안자에 따라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農村定住體系에 관한 研究는 이 中間階層의 位相設定에 대한 논의가 中心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先行研究에서 農村定期(5日)市場에 대한 분석은 일부있었으나 이것이 갖는 農村定住生活上의 의미와 機能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간과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부분의 도시인들이 정규 서비스施設에 집착하여 定期市場의 장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데서 발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下位農村地域에서 定期市場이 갖는 서비스 提供機能은 매우 지대하며 효율적인 운용여하에서 따라서는 農村 定住體系 設定에서 당면하고 있는 앞의 문제를 상당부분 풀어줄 수 있는 빌미가 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全²⁰⁾의 農村 5日市場에 관한 研究에 의하면 5日市場이 갖는 장점 또는 機能으로

- 1) 생활권의 中心에 위치하여
- 2) 거래상품이나 거래행위가 참여상인들의 구미에 맞고

3) 신선한 소량의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으며

4) 다종다양한 상품을 경쟁에 의하여

5)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6) 소자본의 상인들이 상행위에 참여하여 고용효과나 농의소득원의 확보가 용이하며

7) 소득의 균등분배가 가능하며

8) 농민은 4일간 일하고 하루 市場을 보면서 휴식을 하는 생활의 리듬을 취하고

9) 참여상인은 순회하면서 계속 상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

는 점을 들고 있다.

위의 研究에서는 또한 農村住民의 65.83%가 필수품 구입선으로 5日市場을 선호하고 있으며 5日市場의 평균이용회수는 2회 개설될때 1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5日市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역시 88% 이상이 존속을 희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5日市場이 갖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 즉 불결, 전근대적 거래방식, 불공정거래 등을 공공차원에서 制度的으로 보완하고 최소한의 기반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존립의 근거는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5日市場을 農村定住體系 中間階層 設定의 대안적 가늠자로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5日市場과 定住生活 中心地는 같이 일치한다.

Table-2에서 보면 군별로 주요 5日市場이 입지해 있는 곳은 포괄권역이 넓거나 자체세력이 강한 地域中心地에 입지해 있다. 자체세력이 강하더라도 上位中心地에 인접해 있는 地域은 대부분 市場이 없거나 쇠퇴하고 있으며 中心機能 역시 미약하다.

또한 定期市場은 階層性이 존재한다. 군청이 소재한 읍의 큰 場들은 그들대로 定期性을 유지하고 下位의 市場들은 中心都市의 개장일을 읍면에 포함시킨 가운데 별도의 定期性을 유지

하고 있으면서 階層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 행정구역 조정은 定期市場의 성쇠와 연결시켜 中心性和 市場機能이 양호한 中心地를 지원하므로써 자연스럽게 이행해 가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나. 定住生活의 與件變化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5日市場은 서비스機能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常設 서비스機能과 이동서비스(Mobile)機能의 中間的 성격을 띠게 되어 農村地域 서비스 수요가 갖고 있는 특성에 비교적 적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보완적 機能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 面單位級 5日市場의 성쇠가 말해주듯이 5日市場은 農村地域의 定住與件 변화에 자연스럽게 대응하여 왔으며 基盤施設에 대한 투자가 거의 필요없으므로 확장과 축소 또는 폐쇄가 용이하며 미래의 農村部落이 갖는 불확실성을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다.

다. 農村住民의 定住生活 樣態에 가장 적합하다.

農村地域 서비스 공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계치 확보인데 5日市場은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포괄영역을 상실의 경우보다 5배로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수요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경쟁에 의해 제공받게 하므로써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수혜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農村住民의 서비스이용은 일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며칠 한번 모아서 여러가지일을 한꺼번에 보는(One-stop shopping) 형태이므로 구매와 판매, 교류, 업무 등을 고루 해결할 수 있는 5日市場-中心地의 機能은 이에 매우 적합하다.

이는 또한 소외된 階層이나 住民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없이 5日市場을 이용하여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地域統合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라. 都農間의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農村의 5日市場은 그 機能面에서 서구의 가장 발달된 小賣市場 형태인 Hypermarket과 유사하다. 한번 시장에 나가면 구매-판매-업무-휴식-문화활동-기타 서비스 등을 전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가용의 확대보급에 의한 이동능력의 증대와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증가, 흥정에 의한 거래의 매력 등으로 점차 도시인들이 인근 農村地域 定期市場을 이용하면서 市場이 갖는 복합機能을 즐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農村 定期市場은 都農間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場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農村定期市場이 下位地域 定住體系設定의 가늠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다.

3. 下位地域 定住體系 設定

이제 農漁村地域 定住體系 設定에 있어 中間階層의 位相設定에 관한 하나의 준거기준이 제

시되어졌다.

즉, 현재의 행정구역상 地域中心都市 (中心都市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機能을 갖는 보성군의 벌교, 고흥군의 녹동 포함)를 제외한 小邑, 面級 中心地중 정상적인 5日市場 機能을 확보하고 있는 地域은 地域中心地 또는 小都邑으로 구분 육성되고 이 機能을 상실한 나머지 地域은 기존의 中心村落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中心地 또는 中心聚落으로 구분 육성한다는 戰略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面級 地域規模로서는 정당한 中心機能을 수행할 수 없다는 大面主義의 주장과 農村住民의 基本的 필수수요를 접촉범위 (Contact field)로서 수용하고 공동체적 집단의 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면이 너무 크므로 中心聚落으로 표현되는 부락연합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小面主義의 주장을 5日市場機能의 입지 경향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형태가 된다.

本 研究에서 事例地域으로 삼은 6個郡地域에 대해 위의 모형을 토대로 定住體系를 設定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3. 農村地域 定住體系 設定事例.

郡	階層	中心都市	小都邑	中心村落	部 落
장	흥	장흥읍	관산, 대덕, 장평	유치, 장동, 부산, 안양, 용산, 회진	431개 자연부락
고	흥	고흥읍, 도양읍	과역, 도화	동강, 대서, 남양, 점암, 산내, 두원, 풍양, 봉래, 포두, 도덕, 금산	511개 자연부락
보	성	보성읍, 벌교읍	북내, 득량	문덕, 검백, 미력, 노동, 웅치, 회천, 울어, 조성	607개 자연부락
해	남	해남읍	문내, 북평, 송지	황산, 화원, 산이, 마산, 옥천, 삼산, 화산, 계곡, 북일, 현산	546개 자연부락
완	도	완도읍	노화, 금일	약산, 고금, 청산, 군외, 신지, 소안, 보길, 생일, 금당	303개 자연부락
곡	성	곡성읍	석곡, 옥과	오곡, 삼기, 목사동, 죽곡, 고달, 입면, 검면, 오산	265개 자연부락

주: 중심촌락의 경우 기존의 중심촌락급(면급소재지 이외)포함

VI. 要約 및 結論

최근 정부차원에서 農漁村 下位地域이 겪고 있는 심각성을 인식하여 面單位地域에 대한 定住生活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 실천성을 전제로하여 본격적으로 下位地域의 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도, 방글라데쉬,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보여 주듯이 정교한 계획기술에 근거하여 화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어도 그 계획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종이계획 (Paper planning)으로 끝나버리는 실패 예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農村의 下位地域 定住體系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근거되는 이론을 제시하여 定住體系에 입하는 基本立場이 객관화 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農村地域 定住體系의 中間階層을 設定함에 있어 일반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에 유의하여 定期 5日市場이 農村定住生活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位相을 분석한 결과 定住體系 수립의 가능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中間階層의 定住體系를 정상적인 5日市場機能을 갖는 地域(小都邑)과 그렇지 못한 地域(中心村落)으로 구분하므로써 農村의 定住體系를 中心都市-小都邑-中心村落-部落의 4段階로 정립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既存의 여러 논의를 定期市場이 갖는 계획적 이점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얼마나 정교하게 定住體系를 設定하는 것이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투입을 통해 農村開發에 대한 農村住民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정부가 최선으로 제시되는 案들이 農村住民들의 자발적 참여에 구체화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다.

本 研究에서 제시된 내용은 全南 일부 地域에 대한 事例研究와 既存의 研究結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차후 계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하나의 案임을 침언한다.

주: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세미나(1990. 8.27~28, 충남부여)에서 발표된 제3부제 (농어촌지역정주체계정립과 시설배치계획)논문을 정리한 것임.

參 考 文 獻

1. 崔洋夫, 1988, 農村의 定住性 회복을 위한 定住環境開發의 方向과 課題, 農村生活環境改善을 위한 政策課題 워크숍 보고서, KREI, pp.1-22.
2. 柳佑益, 1988, 農村의 定住性 회복을 위한 定住環境開發의 方向과 課題, 農村生活環境改善을 위한 政策課題 워크숍 보고서, KREI, pp.69-83.
3. 崔洙明, 1985, 韓國農村의 定住生活圏 開發戰略에 關한 研究, 서울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4. Cloke, P. J., 1983. An Introduction to Rural Settlement Planning, Methuen.
5. Dun, M. C., 1976, Population Change and the Settlement Pattern, Rural Planning Problems (ed, by G. E. Cherry), pp.13-48.
6. Shaw, J. M., 1979, Rural Deprivation and Planning, Geo Abstracts Ltd.
7. Moseley, M. J., 1980, Is Rural Deprivation Really Rural?, The Planner No. 66, p.97.
8. 農業振興公社, 1988, 高興郡 農漁村地域 綜合開發計劃(案).
9. 農業振興公社, 1988, 長興郡 農漁村地域 綜合開發計劃(案).
10. 農業振興公社, 1989, 莞島郡 綜合開發 基本構想(案).

11. 農業振興公社, 1989, 海南郡 綜合開發 基本構想(案).
12. 農業振興公社, 1989, 谷城郡 綜合開發 基本構想(案).
13. 農業振興公社, 1989, 寶城郡 綜合開發 基本構想(案).
14. 農業振興公社, 1989, 山地綜合開發의 開發技法에 關한 研究, pp.981-1104.
15. 崔洋夫, 鄭喆模, 1984, 農村地域 定住體系와 中心地開發, KREI.
16. 金仁, 1987, 農村地域 面級都市 기능활성화를 위한 研究, 韓國學術振興財團 研究報告書.
17. 吳洪哲, 1987, 過疎地域의 教育環境과 政策的 對應, 地域環境 제5호, pp.5-71.
18. 柳佑益, 1988, 山村地域 定住體系의 整備方案研究, 農業振興公社.
19. 李正煥外 3人, 1989, 定住體系에 따른 中心地 機能分析, KREI.
20. 全太甲, 1987, 農村 5日市場의 標準模型設定에 關한 研究, 全南大 農漁村開發研究, Vol. 22, pp.7-26.